

광화문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복합문화공간

퓨어아레나

사람 많은 광화문. 그 곳에서 서대문쪽으로 조금만 발걸음을 옮겨보자. 성곡미술관 가는 한적한 길목에 자리잡은 감각적인 핫 플레이스, '퓨어아레나'가 자리잡고 있다.

이곳은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PR회사에서 운영하는 '브리스라'이다. '브리스라'는 밥, 술, 커피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. PR회사 건물 1층에 자리잡고 있다.



조 해인 기자

- ① 외부 전경
- ② 내부 모습
- ③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서가



감각적이며 모던한 내부에서 기분전환

PR회사에서 운영하는 곳인 만큼 세련되고 감각적이며 모던한 내부 공간 디자인이 기분전환을 시키기에 충분하다. 넓고 탁 트인 매장 내부 중앙에는 길쭉한 나무탁자가 자리잡고 있고 그 옆으로 곳곳에 작은 나무 탁자가 편안한 느낌을 준다.

편안한 음악이 흐르는 매장 한쪽 흰 벽면에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고, 그 벽면 맞은편 벽으로는 서가를 배치해 마음껏 책을 읽어 볼 수 있게 했다.

매장 곳곳에는 PR회사와 함께 했던 김연아의 스케이트, 박지성의 축구공, 장미란의 벨트, JYJ의 사인 등 작업했던 파트너들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다.

이곳의 주요 고객들은 젊은층부터 나이든 중년 여성 등 다양하다. 편안하고 모던한 분위기가 모든 계층에게 어필한 결과인 듯하다. 노트북을 탁자에 놓고 하루 종일 앉아서 밥을 먹기도 하고, 차를 마시기도 하고,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서 하루를 보내기에도 지루하지 않다.

겉 없는 필자는 아이를 대동했는데, 이것저것에 호기심 많은 아이를 단속하기 어려워 애를 먹었지만 빨간 자동차에 아이를 태우고서야 식사를 점잖게 마칠 수 있었다.

의자와 테이블이 아닌 마루로 된 공간도 있다. 파란 벽으로 된 그 곳은 커튼을 치면 좀 더 독립적으로 공간을 쓸 수도 있어 예약 문의가 많다고 한다.

캐주얼한 음식과 맛있는 디저트

음식 종류도 다양하다. 퓨전음식부터 덮밥, 파스타 등 다양한 캐주얼 음식이 마련되어 있다. 메뉴판에도 글자와 함께 식재료의 일러스트를 그려 넣어 재미를 더한다.

필자 일행은 ‘레드칩스’ 라는 비빔면과 ‘웍치킨라이스’, 샐러드 메인 토핑과 드레싱을 선택할 수 있는 ‘퓨어샐러드’ 를 주문하고 토핑으로는 구운 닭가슴살을 선택했다.

음식이 주문되면서 음식보다 눈에 띈 것은 그릇들이다. 오렌지색 사각 접시, 눈부시게 흰 접시 등이 입맛을 돋게 한다.


‘레드칩스’ 는 매콤한 소스에 비빔 중화면에 닭고기 가슴살 구운 것을 넣고 비벼 먹는 비빔면이다. 매콤하면서 새콤달콤한 맛이 툭툭 튀는 퓨어아레나 이곳 매장과 참 어울린다. 아니나 다를까 레드칩스는 이곳의 대표 메뉴다.

‘웍치킨라이스’ 는 닭다리살, 캐슈넛, 신선한 야채를 중화풍으로 볶은 후 밥과 함께 곁들인 메뉴다. 많이 맵지 않으면서 부드럽고 고소하며 간결한 맛이 있다.

복합 문화공간 ‘퓨어아레나’

식사 외에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. 여성 구두 디자이너와 함께 파스타를 모티브로 한 구두를 예약 판매하는 ‘파스타 프로젝트’ 가 그것이다. 이 구두들은 이 회사 여성 컨설턴트를 위해 편안하면서 디자인이 우수한 구두를 만든 것이 시작인데, 반응이 좋아 매장에서 판매하게 된 것.

또 1일전 예약 가능한 특별메뉴도 있다. 생일메뉴, 화장품 브랜드 비오템과 개발한 디톡스세트, 약선 닭백숙까지. 여기에 퓨어아레나 홈페이지로 ‘아췌계’ 라는 파스타 메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세트도 판매한다. 재료를 구입후 유튜브(<http://www.youtube.com/watch?v=H7yQXNultUI>)를 통해 만드는 법을 직접 볼 수도 있다.

다양한 즐길거리로 입맛과 감각을 행복하게 하는 퓨어아레나. 혼자서든 일행과 함께든 이곳에서 만남은 언제나 신선하고 즐겁다. 

위치 : 서울역사박물관과 바로 아래 카페베네 사이 골목으로 쪽 올라가면
오른편에 있다.

전화 : (02)3210-978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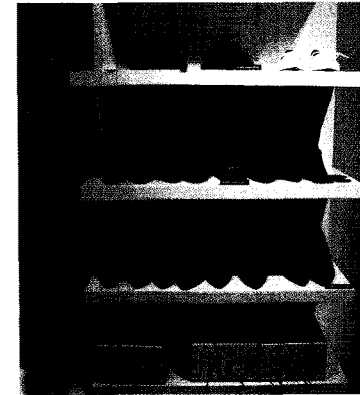
홈페이지 : www.purearena.com



퓨어아레나의 대표메뉴인 레드칩스



중화풍의 웍치킨라이스



파스타 프로젝트



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빨간 자동차